

#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길성

한국민주화혁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5개 은행 퇴출, 현대자동차의 일방적인 고용조정 시행, 부산교통공단의 노사합의각서 불이행, 일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문제, 금속산업과 병원산업에서의 해고 확산과 단체협약 개악,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 끼니마저도 걱정해야 하는 가족들, 무엇보다도 고생스럽게

경쟁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 연맹의 송원산업 노동자들...

87년 칠판구 노동자대투쟁 11년째를 맞는 올 여름도 우리 노동자들은 소박하고 평범한 삶의 여유를 누리기는커녕 처음 겪는 실업대란과 고용불안으로 생활과 생존이 파국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 교육·홍보·선전·조직 따위의 일상활동을 착실하게 실천해온 사업장에서는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안팎의 어려움을 이겨내려 애쓰고 있지만, 반대로 일상활동을 게을리 했던 사업장에서는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믿지 못하고 사측의 회유와 강압에 쉽게 무너지고 있다.

## 노동조합이라는 기밀 언덕

너무나 지치고 힘든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무슨 소용이나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지도 모르지만, 돌아켜보면 모진 시련과 고통을

너무나 지치고 힘든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무슨 소용이냐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지도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모진 시련과 고통을 무릅쓰고  
노동조합운동을 이나마 가꾸어 오지 않았더라면 이 엄청난 사태를 맞아  
우리 노동자들이 기댈 언덕이 어디에 있었을까 싶기도 하다.

무릅쓰고 노동조합운동을 이나마 가꾸어 오지 않았더라면 이 엄청난 사태  
를 맞아 우리 노동자들이 기댈 언덕이 어디에 있었을까 싶기도 하다.

노조사무실에서 먼지만 쌓여가던 장수도 다시 꺼내고, 매주마다 속보도  
내고, 조합원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산별연맹에도 자주 연락하  
고, 신문도 꼬박꼬박 읽고, 이런책 저런책 찾아서 공부도 하고... IMF 체  
제가 오기 전에는 느슨했던 일상활동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노동조합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난국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해보지만, 가진 것 없이 열심히 일만 해왔던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빈궁함과, 열심히 하지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성과와 해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해하는 노동조합 앞에서는 할말을 잃어버리게 된다.

### 늘어나는 부당노동행위와 가진 자들의 꿀볼건

경제위기와 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 사회의 경제조건이 몹시 악화되었  
고,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파산에 처한 기업들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  
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경제 분위기를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공격에  
이용하는 기업들도 크게 늘고 있다. 노동조합에게 '빼앗겼던' 현장장악력  
을 회복하고 '형편에 비해 과다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자리'로 돌리다  
는 이유로 실제로는 회사 사정이 크게 어렵지 않은데도 개악된 협약안을  
내놓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사업장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대통령과 장관들은 노사정 3자간의 공평한 고통분담을 떠들어대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자본의 '고통' 까지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지고 있다. 반면에 병역비리와 탈세, 외화 빼돌리기 같은 가진 자들의 추태가 날마다 신문방송에 오르락 거리고 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만큼 부는 상류층으로 몰리고, 날로 악화되는 빈익빈부의 부 사태로 사회의 양극화와 분열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지배해 왔던 (현재의 경제위기와 사회붕괴에 주된 책임이 있는) 정부와 자본 어떤 쪽도 사회의 통합력을 튼튼히 할 능력은 물론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의 사회적·역사적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 정책수립과 대안제시 능력이 절실한 때

실업대란과 고용불안, 경제위기와 사회붕괴 상황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노동조합운동은 걸어온 길을 겸허하고 냉정하게 돌아보고 나아가갈 좌표와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경험과 기술로만 풀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 조합원을 관객으로 전락시키고 간부만의 활동을 해오지는 않았는지, 임금과 단협 중심의 '경제주의'에 조합원의 의식과 활동을 묶어놓지는 않았는지, 일상활동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는지, 세상을 이해하고 앞서 나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 왔는지 따위의 문제를 짚어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주노조운동의 무기인 현장의 역동성과 조합원의 직접 참여를 자극하고 이끌어낼 방법과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수립과 대안제시 능력을 기르고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십여년 동안 노동조합운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그 성과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정부와 자본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 조직을 지키고 운동을 보존하기 위해 동원과 투쟁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대안을 개발하는 작업을 소홀히 해왔음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이 입단투리는 협소한 틀을 벗어나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를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를



노동운동 안에 다양한 주장과 흐름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다양성과 개성들이 운동의 발전을 위해 합쳐지지 못하고 반목과 질시로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았다. 올바른 품성과 자세라는 토양 위에서만 올바른 사상이 숨쉴 수 있다.

진작부터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했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이 사회개혁과 정치경제 민주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개발해 놓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 동지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낡은 것이 다 무너졌지만 새로운 것이 등장하지 않은 때를 위기라 한다고 그람시가 말했던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새로운 것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은 위기가 분명하다. 노동운동이 과연 대안과 전망을 가지고 새로운 세력으로 떨쳐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자세와 각오를 베풀 때다.

1984년 노동조합 활동을 처음 시작한 이래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개인의 사정과 조건이 어려워 떠난 사람들도 있고, 사상과 입장이 달라 갈라져 떠난 사람들도 있다. 노동운동 안에 다양한 주장과 흐름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다양성과 개성들이 운동의 발전을 위해 합쳐지지 못하고 반목과 질시로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았다. 올바른 품성과 자세라는 토양 위에서만 올바른 사상이 숨쉴 수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동지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필요한 때다.